

두 대학 도시의 심연을 탐색하다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와 문화(페터 지거 지음, 박규호 옮김, 갑인공방, 2005)

안 치 운 · 호서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 연극평론가

책과 말과 사전의 도시라고 하는 대학 도시, 옥스퍼드에 있는 “낙원의 거리, 음악의 초원, 신의 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길, 논리의 길”과 같은 거리와 들판의 이름과 달리 우리나라 대학 풍경은 자본주의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책읽고 사유하고 글쓰는 인문학을 천시하고, 돈이 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대학을 남루하게 만들었다. “공부는 영원히 사는 듯 하고, 살기를 마치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는 각오로 하라”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뜻깊다. “주님은 나를 밝히시도다”라는 글귀가 찍힌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출판사인 옥스퍼드 북스의 책들은 젊은 시절 우리들을 행복하게 했다.

지난 겨울 방학, 영국에 가서 며칠을 보냈다. 머무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일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제자를 만나 공부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 맘껏 나눈 대화였다. 어린 시절 읽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 루이스 캐럴은 옥스퍼드 출신의 수학자였다. 제자는 런던의 킹즈 로열 칼리지에서 석사를 마친 후, 옥스퍼드 대학으로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다. 원래 계획은 내가 런던에서 옥스퍼드로 가서 며칠 보내는 것이었는데, 그가 런던으로 와 날 만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제자는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비만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공부하는 스트레스 몸의 균형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했다. 공부하는 큰 재미에 반하여 정신적인 긴장감이 너무 커서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았다.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 주변의 친구들 대부분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까지 듣게 되어, 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제자는 떠나는 내게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주었다. “The more I study, the more I know, the more I know, the more I forget, the more I forget, the less I know, so why study?” 이 문장은 옥스퍼드에 전해 내려오는 패러독스라고 했다. 아마 그리스 혹은 라틴어를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게는 공부하는 재미, 공부의 매력을 전해주는 표현으로 여겨졌다.

귀국한 후, 나는 곧바로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이 둘을 옥스브리지Oxbridge 라고 말한다—에 관한 서적들을 찾아 읽게 되었다. 나는 옥스퍼드와 같은 지식의 도시, 교육학적 모델, 정신적인 삶의 형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영국 “지성계의 지도로 보면, 영국의 한 복판 구름 위로 솟아있는 지고의 공간이며, 섬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섬”과 같은 두 대학 도시를. 이 책은 “중세 이후 두 대학은 시대적 현실과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에 저항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며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과연 800년의 오랜 전통을 지닌 이런 도시가 있는가? 이 책은 독일인 저자가 썼다. 저자의 출발은 내가 지닌 궁금증과 같았을 것이다. 옥스퍼드에 가면, “저명한 교수가 몸을 숙이고 앉아 일하고 있는 창문”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하는 부러움 말이다. 한 마디로 이 책은 “심연보다 더 깊은 심연, 동굴 속에 또 다른 동굴들이 있는” 두 대학 도시의 엄고고설진 복잡한 통로들을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초부터 런던과 지방에 설립되기 시작한 신생대학들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와 치치하고 있던 역사적인 독점적 지위에 반대하며 등장했으며, 옥스브리지와 다른 정신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대리석으로 지어진 전통적인 두 대학과는 달리 벽돌과 콘크리트 그리고 유리로 지어진 대안들이었다.” 그 결과 옥스브리지는 그동안 영국에서 생겨난 수많은 대학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서술도 이 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두 대학의 정신적인 바탕은 인문적 전통을 이어가는 라틴어와 그리스 철학 그리고 기독교 율리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이 대학의 자율성과 이어져 있고, 궁극적으로 영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명한 이들이 얼마나 이 대학 졸업생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대학University이란 처음에는 글자 그대로 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 즉 교수와 학생의 연합체였고, 학업과 거주 공동체는 나중에 대학으로 합쳐졌다. 한 권의 책과 같은 대학 그리고 “거리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마치 책장을 넘기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대학 도시가 그림다. 🌈🌈🌈

